

‘연애의 첫 단추’·‘순천 한 바퀴’ 대학 이색 교양과목 눈에 띄네

광주·전남 대학가, 학생 공모 통해 수요자 맞춤 강의로 변화 시도 데이트하고 코스 계획 짜고...전남대 농대 ‘반려식물 키우기’ 인기

광주·전남 대학가에서 이색 교양과목이 잇따라 개설되고 있다. 대학들은 학교에서 개설하는 강좌에서 벗어나 학생 공모를 거쳐 과목을 신설하는 수요자 맞춤형 강의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남대는 학생 공모전을 거쳐 선정한 ‘연애의 첫 단추’ 강의를 2학기에 시작한다. 3학년짜리 교양 선택 과목이다.

이 과목은 “이성과 mbti, 취미 등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며 실제 연애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바람에 따라 개설됐다.

수업에는 이성끼리 1:1로 조를 이뤄 데이트 하는 과제도 포함돼 있다. 이성과 함께 하면서 느낀 감정과 경험을 발표한다.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되 이수 토론, 데이트 코스 계획서의 완성도, 데이트 과제 발표 점수 등을 합산해 성적을 매긴다.

이 강의를 맡은 한의승 교수는 “학생들이 토론과 데이트 실습을 통해 개별주제로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성 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체험형 강의도 신설되고 있다.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공부를 장려하는 취지에서다.

순천대는 2학기에 ‘순천 한 바퀴’ 교양과목을 개설한다. 역시 학생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한 과목이다.

수강생 정원이 20명이지만 수강신청 전 학생들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미리답기’ 횟수는 100회를 찍었다.

학생들은 자유 주제로 좋아하는 장소를 걸어서 탐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제를 제출한다.

필기시험이 없는 대신 학생이 방문한 장소와 코스 선정 이유 등을 발표하는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김순기 교수는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순천이라는 지역을 이해하고 타지역에서 온 학생들도 지역에 애정을 갖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했다.

전남대 농대는 지난 1학기 ‘반려식물 키우기’ 강의를 개설했다.

학생들은 분갈이, 화분 고르기, 물·비료주기 등 식물 관리요령을 배우며 반려식물을 키웠다.

이 강의는 전남대 농대에서 교양선택 과목 수강 신청 경쟁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박성화 교수는 “전공필수와 달리 교양과목에서는 학생에게 부담이 덜하면서도 유익한 과목을 개설하고 싶어 강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순천대는 교수와 학생이 참여한 동아리 활동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했다.

지난 2017년 일부 교수와 학생이 동아리를 꾸려 농작물을 심고 관찰하던 활동이 강의로 채택됐다. ‘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다.

강좌 개설 4년째인 올해 1학기에는 수강생 500여명에 달하는 대표 강의로 됐다.

강의 담당 한효심 교수는 “농작물이 종자에서 발아해 꽃과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학생들이 체험함으로써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한편, 우리 농산물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말라리아 대비 소독 16일 광주북구보건소 직원들이 광주시 북구 양산동 양산호수공원 산책로에서 소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국 말라리아 경보...환자 500명 넘어

광주·전남 16명...전년비 3배 늘어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500명을 넘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질병관리청포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16일까지 확인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총 518명이다. 전국 환자는 지난해 1년간 발생한 420명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해 각 0명과 5명이 발생했지만 올해(16일 기준) 광주에서는 4명, 전남에서는 12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385명(2020년), 294명(2021년), 420명(2022년) 등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

제돼 야외활동이 늘면서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 파주지역에서 채집된 매개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되자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감기와 유사한 증세가 3일 간격으로 나타나는 삼일열 말라리아로, 열대지방의 열대열 말라리아와 달리 치사율이 낮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봉수 유적 국가지정문화재 된다

여수 돌산도·고흥 마복산 등 7곳

산적대기에서 봉화를 피워 위급한 소식을 전하는 봉수대는 조선시대 주요 통신 수단이었다.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로 긴급 상황을 중앙에 전달했다.

여수, 고흥 등 서남해안을 따라 설치된 봉수 유적 16곳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1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산하 사적 분과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전남을 비롯해 전북, 충남, 경기, 인천 등 지역 16개 봉수 유적을 사적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사적으로 지정할 때 명칭은 ‘제5로 직봉(直烽)’이다. 직봉은 전국 봉수망을 연결하는 주요 봉화대를 의미한다.

역사적 사료인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는 5개의 직봉, 23개의 간봉(間烽·간선로 사이의 작은 봉수망) 노선이 있었다. 이번에 논의한 봉수 유적은 서남해안에 걸쳐 있다.

이번에 제5로 직봉(直烽)에 포함된 전남의 봉수대는 모두 7개이다. 여수 돌산도, 고흥 마복산, 진도 점철산 등으로 봉수 유적이 ‘제5로 직봉’ 구간에 있다.

이밖에 제5로 직봉(直烽)에 포함된 봉수대는 논산 황화대, 강화 망산 등 9곳의 유적이다.

여러 지역에 걸친 유적을 하나로 묶은 ‘연속유산’은 이번이 첫 사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5로 직봉(直烽)’은 여수부터 강화까지 서남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는 게 특징”이라며 “사적 지정 계획을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오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이나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취약직종(전하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6㎡이상의 바닥면적, 높이 2.1m 등의 크기

가 충족돼야 하며 노동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또 적절한 온도(18도-28도)와 적절한 습도(50%-55%), 적정 밝기(100럭스-200럭스)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환기나 음료시설 등이 있어야 하고 휴게시설을 알리는 표지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2026학년도 수능 11월 13일 실시

현재 고1 해당...문·이과 통합 유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수능)은 2025년 11월 13일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시행일과 영역별 문항 유형을 비롯한 수능 주요 내용을 16일 발표했다.

2026학년도 수능은 2022학년도에 도입된 현재의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체제를 유지한다.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우선 국어·수학영역은 공통과목(출제비율 75%)과 선택과목(25%)을 함께 치른다.

국어영역은 ‘독서’, ‘문학’이 공통과목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수학영역은 ‘수학 I’, ‘수학 II’가 공통과목이

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한다. 문항 30%는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사회·과학탐구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골라 응시하면 된다.

직업탐구영역의 경우 1개 과목만 응시하는 수험생은 선택과목 5개 중 1개를 골라 치르면 되고, 2개 과목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선택과목 5개 중 1개와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치르면 된다. 한국사 영역 응시는 필수다. 이 밖의 영역이나 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볼 수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설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